

일주문

해군 3백여명에 수계
 금종 해광사 주지는 2월 28일 진행 해군법당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3백여 명의 장병들에게 계첩을 전달했다.

그리스 세계시인의 날 참가
 고은 시인은 17일부터 1주 일간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주최 '세계시인의 날' 축전에 참가한다.

공직자·시민 대상 법문
 박원일 한국사회교육연구회장은 15일 김포시청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공직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인도철학회 4대회장
 김선근 동국대 교수는 3일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전국 인도철학회 이사회에서 제4대 회장에 선임됐다.

김중서 박사 초청강담회
 신광석 한국불교언론인회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3차 운영위원회 및 김중서 박사 초청 오찬간담회를 연다.

문화재기능인문 이사회
 신중수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장은 15일 협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새로 임명된 임원진 상견례를 갖는다.

전주문화방송 사장 선임
 유희근 전 MBC 불교연구회장은 6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전주 문화방송 사장으로 선임됐다.

위메시나 프로그램 운영
 이태영 한국요기연수원장은 매주 일 오전 10시부터 위메시나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02-888-5087

'불교와 여성' 출판기념회
 이영자 전 동국대 불교대학원장은 26일 오후 4시 동국대학교 문화관에서 '불교와 여성'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남해 보리암서 정기촬영
 김우영 대한불교사친연합회장은 24일 남해 보리암으로 3월 정기촬영을 떠난다. 저녁 11시 용산역에서 집합.

“할머니 편익위주 봉사 전념”

나눔의 집 새 원장 능광 스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부담이 큼니다. 특별한 사안을 맡아보기보다는 순리대로 사심없이 할머니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일할 생각입니다.”

7일 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회에서 나눔의 집 원장으로 선임된 능광 스님은 할머니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능광 스님은 85년에 출가, 92년 운문사 강원 98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2000년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 전문가.

“가장 먼저 직원들과 함께 행정체계를 바

로 잡는데 역점을 두고, 아울러 할머니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나눔의 집이 갖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일리고 이를 지키는 데에도 중점을 둘 것입니다.” 능광 스님은 대사회적 활동에 주력한 전임 원장 혜진 스님과 달리 교계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내실을 다지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따라서 교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능광 스님은 혜진 스님 문제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흐려져서는 곤란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나눔의 집이



혜진 스님의 개인적인 실수로 어려움을 겪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혜진 스님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나눔의 집이 있게 됐습니다. 나눔의 집은 역사의 산 현상이 아닙니까. 이것을 지키고 가꿔나가는 것은 저나 나눔의 집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능광 스님은 지금까지 노출된 여러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교계가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한명우 기자

“뜻깊은 대작불사 장엄 회향 기원”

역경불사 행사비 1억 회사 김순경 회장



“37년 간의 대작불사를 회향하는 법회라면 어느 법회보다 장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재가신도로서 부처님 은덕을 갚을 길이 없었는데 동국역경원 역경불사 회향 법회에 작게나마 정성을 보낼 수 있게 돼 무척 기쁩니다.”

7월경에 열릴 계획인 동국역경원의 역경불사 회향법회 행사비 1억 원을 회

사한 김순경(72 새한마이크로텍 회장. 그간 불사에서 신행활동을 해 온 김 회장은 “뜻 깊은 법회가 비용 문제로 초라하게 치러진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다”며 지난 9일 동국대 대각전에서 열린 삼장법회에서 행사비를 내놓았다.

법회에서 후원회장 석주 스님은 김 회장에게 역경후원회 부회장 소임을 맡기며 “지중한 인연이 아니면 이 같은 선행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치하했다.

김 회장은 불선사 신도회장과 구리시 문화원장도 맡고 있다.

임연태 편집위원



월주 스님 등 4명 방북

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성타 공동대표(불국사 주지), 설송(선본사 주지) 광복(도선사 주지) 스님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 13일 출국했다.

월주스님 일행은 방북 기간 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원한 미역 1000톤과 내복 등 지원물품의 분배 확인을 위해 상원군 뒷염소 시범목장 등의 지원지역을 방문해 이후 지원사업에 대해 북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조선불교도연맹의 안내로 성불사와 보현사도 참배한다. 24일 귀국한다.

정성운 기자

“사회 구석구석 깨달음 전하겠다”

교불련 신임 회장 연기영 교수

3일 열린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연기영(동국대 법학과 교수)이 선출됐다. 연 교수는 “1천여 회원들이 지식인 불교 운동을 하겠다”는 창립 정신으로 똘똘 뭉쳐 신중만만 아니라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한 자원이 높이는 데에도 고심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전국 120여 개 대학의 강단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불자 교수들의 모임인 교불련은 학술 단체의 성격도 있지만,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로 구성된 만큼 불교를 알리는 데도 소홀할 수 없다는 게 연 교수의 기본적인 신념이다.

이를 위해 연 교수는 교불련 연중 행사 외에도 대학생불자연합회(이하 대불련)의 법회에 회원들이 지도교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불련 지도법사단을 만드는 것은 물론, 7월경 티베트 성지순례 9월경 불교미술전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불련은 매년 봉축학술대회(5월), 하계 수련대회(7월), 추계학술대회(10월) 등을 진행해 왔는데, 이런 대회만으로는 교불련의 창립 정신을 이어가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부회장에 황진수(한성대), 유필화(성균관대), 이인자(경기대), 김보현(동국대) 교수, 사무총장에 이상경(신구대) 교수 등이 각각 선출됐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한병삼 전 중앙박물관장 별세



한병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겸 매장문화재 분과 위원장)이 4일 오전 급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한국 고고학계의 산 증인인 한 전관장은 1935년 평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 경주박물관 중앙박물관장 등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동국대 석좌교수와 경주캠퍼스 매장문화재연구소장을 겸했다.



감로사 제50회 3천배 기도 회향

감로사주지 혜총은 4-8일 3천배 참회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올해로 50회를 맞이한 3천배 참회기도법회에는 2천여 사부대중이 동참, 참회기도와 법문을 듣고 나라의 안녕과 개인의 입장소멸을 발원했다. 참가한 불자들은 참회의 절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조복받고 대덕스님들의 법문으로 심신을 다졌다.



광운정사 사리친견·수계법회

서울 광운정사주지 정운은 1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0주년 기념 부처님 진신사리친견 및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스리랑카에서 이운되어 온 부처님진신사리는 이날 친견법회를 마치고 광운정사 법당으로 이운됐으며, 이후 강원도 홍천 운봉산 기슭에 건립 예정인 적멸보궁 광운사에 봉안될 계획이다.



육군사관학교 졸업발원 법회

육군사관학교 회랑호국사주지법사 김성준은 7일 제57기 졸업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광 회계사 주지, 명조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을 비롯해 국제선원 스님들과 국군불교총신대회 조남진 부회장, 전인규 사무총장과 졸업생도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석암장학회 장학금 전달

석암장학회(회장 정런)는 8일 내원정사에서 2001학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동국대 경주 캠퍼스 다연 진성 스님을 비롯해 대학생 13명, 부일전자공고 남지혜 학생 외 고등학생 10명, 다송중 김수경 학생 외 중학생 4명에게 총 1천6백1십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엄불사” 시멘트의 한식조각물 성형으로 죽림 불교 건축이 제작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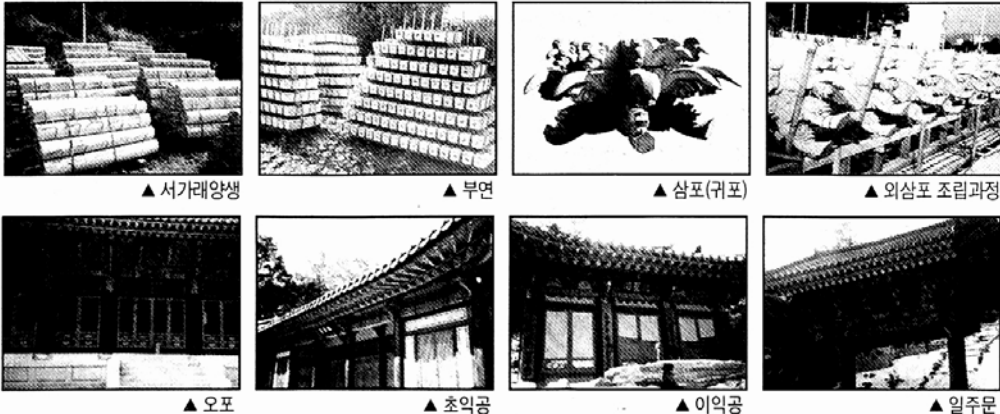
장인정신의 혼을 담은 전통 죽림 불교 건축 새로운 한국 전통건축 창조에 노력하는 죽림건축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안내

- 콘크리트 범당
- 요사채
- 납골당
- 콘크리트 성형조각 판매

특징

-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 현장시공이 간편하고 빠릅니다.
- 목조건축에 비해 선이 굵고 정밀해 우아합니다.
- 섬세한 조각성형으로 작품성이 풍부합니다.
- 화재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년제 정규대학 건축학과 졸업자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죽림 불교 건축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204-5
 Tel : (031)287-9540(대)